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 (윤리와 사상)

성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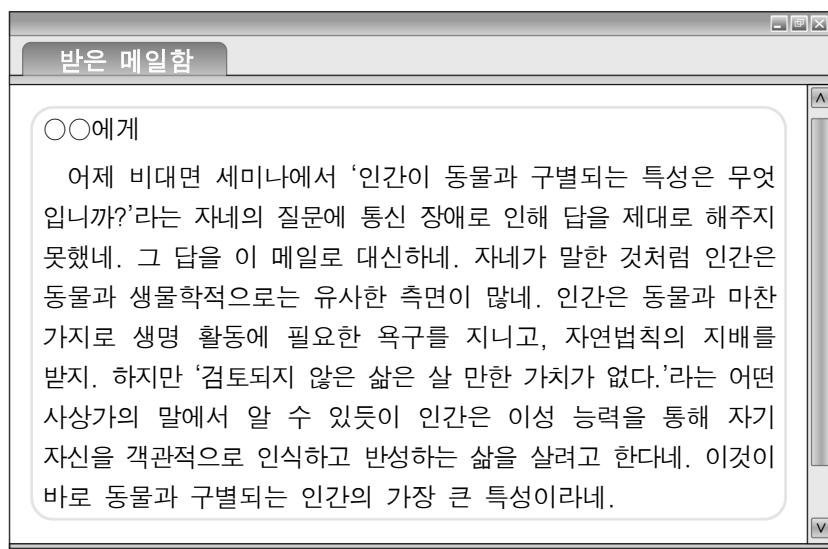
수험 번호

2

제 [] 선택

윤리와 사상

1. 다음 메일을 쓴 사람이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본능에 따라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.
- ②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관습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.
- ③ 생존 활동에 필요한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존재이다.
- ④ 숙고와 성찰을 통해 윤리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.
- ⑤ 세속에서 벗어나 초월적 존재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.

2. (가)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, (나)의 ㉠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	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음으로써 백성이 다투지 않게 하고[不爭],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백성이 도둑질하지 않게 하며,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한다. 그러므로 성인(聖人)의 다스림이란 백성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그 배를 든든히 채워주며 백성으로 하여금 아는 것을 없게 하고 욕심을 없게 한다.
(나)	학생: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사상가: ㉠ 합니다.

- ① 강력한 법령과 통치술로 백성을 강제해야
- ② 인의(仁義)의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
- ③ 공정한 사회 제도와 문명을 발전시키려 노력해야
- ④ 시비(是非)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
- ⑤ 의도적인 조작이 없는 무위(無爲)의 정치를 실현해야

3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루어 남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인(仁)의 실천 방법이다.
- 인은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[克己復禮]이다. 인을 실현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 있겠는가?

- ① 자신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가?
- ②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하는가?
- ③ 자기 부모에 대한 효도보다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하는가?
- ④ 통치자는 덕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가?
- ⑤ 통치자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가?

4. 근대 한국 사상 (가),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(가) 사람은 한울님의 신령한 기운을 모시고 있다[侍天主]. 허나 어찌 사람만이 홀로 한울님을 모셨다 하겠는가? 만물이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.
- (나) 일원상[○]은 신앙과 수행의 표본이다. 일원상의 진리를 깨우쳐서 정신 생활과 물질 생활,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 영육이 함께 온전해지는[靈肉雙全] 삶을 살아야 한다.

- ① (가)는 사람을 신분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본다.
- ② (가)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학(西學)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.
- ③ (나)는 정신 개벽보다 물질 개벽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.
- ④ (나)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종교적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본다.
- ⑤ (가), (나)는 현세에서 이상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본다.

5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-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,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.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,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.
-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. 어떤 것이 그 네 가지인가? 괴로움[苦諦], 괴로움의 발생[集諦], 괴로움의 소멸[滅諦],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[道諦]이 그것이다.

- ① 인간은 오온(五蘊)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실체이다.
- ② 극단적인 고행(苦行)을 통해서만 열반에 이를 수 있다.
- ③ 만물의 무상(無常)함을 깨달아 괴로움을 소멸시켜야 한다.
- ④ 사물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해 삼독(三毒)을 실천해야 한다.
- ⑤ 차별 없는 사랑인 자비를 실천하면 무명(無明)에 도달할 수 있다.

2 (윤리와 사상)

사회탐구 영역

고 2

6. (가)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 ~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<p>(가) 갑: 인간은 누구나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[不忍人之心]을 지니고 있다. 만약 한 어린아이가 우물 안으로 빠져들 것을 본다면 누구든 측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것이다.</p> <p>을: 인간의 본성은 악이며 그것이 선해짐은 인위[僞] 때문이다. 누구나 배고프면 먹고 싶고, 피곤하면 쉬고 싶어 한다. 이렇듯 인간은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과 혼란이 생긴다.</p>	<pre> graph TD A{A} -- 아니요 --> C{C} A -- 예 --> B{B} B -- 예 --> G[G: 갑의 입장] C -- 예 --> E[E: 을의 입장] </pre> <p><범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: 출발 조건 ↔: 판단 내용 →: 판단 방향 ○: 사상가의 입장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보기>				
ㄱ. A: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는가?	① ㄱ, ㄴ	② ㄱ, ㄹ	③ ㄴ, ㄷ	
ㄴ. A: 누구나 수양을 하면 성인(聖人)이 될 수 있는가?	④ ㄱ, ㄷ, ㄹ	⑤ ㄴ, ㄷ, ㄹ		
ㄷ. B: 집의(集義)를 통해 도덕적 기개를 길러야 하는가?				
ㄹ. C: 성정(性情)을 교화하기 위해 스승과 범도가 필요한가?				

7.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. 학생 답안의 ① ~ ⑤ 중 옳지 않은 것은?

서술형 평가				
◎ 문제 : A, B의 특징을 비교하고, 둘 사이의 관계를 서술하시오.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: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, 옳고 그름의 판단 원리가 되는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체계화한 것이다. ○ B: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함으로써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모습이며,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등의 논의를 체계화한 것이다. 				
◎ 학생 답안				
<p>A, B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A는 ① 일반적으로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탐구하며, ② 자신의 삶과 행동을 반성하면서 도덕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. 이에 비해 B는 ③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탐구하며, ④ 현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과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. 한편, A, B는 ⑤ 상호의존적이며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각자 독립적인 영역을 갖지 않는다.</p>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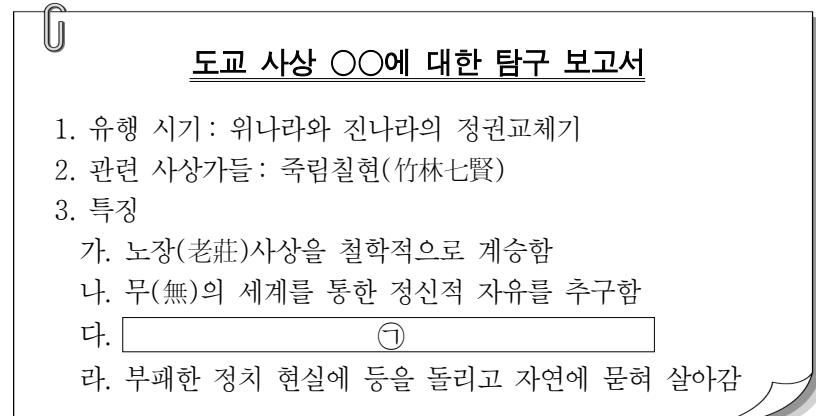
- ① ⑦ ② ⑧ ③ ⑨ ④ ⑩ ⑤ ⑪

8.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- 청색[靑]과 남색[藍]이 다르지만 그 바탕을 보아서는 같으며, 얼음과 물이 다르지만 그 근원은 동일한 것이다.
- 모든 경계가 무한하지만 다 일심(一心)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. 부처의 지혜는 모양을 떠나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가고, 지혜와 일심은 완전히 같아서 둘이 없는 것이다.

- ① 일심으로 돌아가려면 특정 계율에 얹매인 수행만이 필요하다.
- ② 서로 다른 불교 이론과 학설의 다양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.
- ③ 육바라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불성(佛性)을 형성할 수 있다.
- ④ 모든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.
- ⑤ 윤회(輪迴)에서 벗어나려면 진리와 세속이 다름을 깨달아야 한다.

9. 그림은 어떤 학생의 탐구 보고서 내용이다. ⑦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내세의 행복을 위해 제왕(帝王)의 통치술만을 강조함
- ② 은둔의 삶에서 탈피하여 사회 참여적인 태도를 강조함
- ③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게 하는 제례의식을 강조함
- ④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예술적·형이상학적 담론을 추구함
- ⑤ 신선(神仙)의 도를 익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추구함

10. 중국 불교 사상가 갑,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어떤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자성(自性)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단박에 깨닫게 된다[頓悟].

을: 비록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단박에 깨닫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익혀온 습기(習氣)는 단번에 제거하기 어려우니 지혜로 공을 들이고 노력해야 커다란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.

- <보기>**
- ㄱ. 갑: 자신의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직관해야 한다.
 - ㄴ. 갑: 선(禪) 수행을 통해 불변하는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.
 - ㄷ. 을: 정(定)과 혜(慧)를 함께 닦아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.
 - ㄹ. 갑, 을: 경전 공부를 통해서만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1. (가)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은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 ~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친술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갑: 성이 곧 이치이다[性卽理]. 가려지거나 막히는 것이 적으면 발현한 천리(天理)가 이기겠지만 가려지고 막힌 것이 많으면 사욕(私欲)이 이긴다. 그러므로 본연(本然)의 성은 반드시 선이다. 을: 마음이 곧 이치이다[心卽理]. 사욕에 어두워지지 않는 마음이 곧 천리이니, 마음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탤 필요가 없다.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이 효(孝)이고, 임금을 섬기면 충(忠)이다.
(나)	<p><범례> A: 갑만의 입장 B: 갑, 을의 공통 입장 C: 을만의 입장</p>

- <보기>—
- ㄱ. A: 앎[知]은 행함[行]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이다.
 - ㄴ. B: 천리를 보존하고[存天理] 인욕을 제거해야[去人欲] 한다.
 - ㄷ. C: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과 무관한 사물도 없다.
 - ㄹ. C: 양지(良知)는 수양을 통해 형성되는 도덕적 실천 능력이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2. (가)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, (나)의 퍼즐 속 세로 낱말 (A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(가)	하늘이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부여한 것을 본성[性]이라 하고, 이 본성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행동하는 것을 도리[道]라고 하며,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도리를 끊임없이 실천하게 하는 것이 가르침[教]이라고 한다.
(나)	<p>[가로 열쇠] (A):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음을 뜻하는 말. 오륜(五倫) 중 하나 (B): 아버지와 아들을 뜻하는 말. ○○관계 [세로 열쇠] (A): 개념</p>

- ① 현실을 떠나 불로장생(不老長生)을 추구하는 사람이다.
 ② 자신을 수양하여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힘쓰는 사람이다.
 ③ 팔정도(八正道)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.
 ④ 예악(禮樂)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다.
 ⑤ 의로움을 행하기보다 자신의 물질적 풍요를 중시하는 사람이다.

13. 불교 사상 (가), (나)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(가) 모든 사물은 무자성(無自性)이고,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(空)이다.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주장도 연(緣)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무자성이고,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다.
- (나) 모든 것은 다만 식일 뿐[唯識],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. 예를 들면, 눈병이 걸린 사람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머리 카락이나 달 등이 보이는 것과 같이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 허망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일 뿐이다.

- ① (가):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발생하며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.
 ② (가): 극단에 치우친 견해를 벗어나 중도(中道)를 통찰해야 한다.
 ③ (나): 마음의 작용을 떠나서는 어떠한 현상도 존재하지 않는다.
 ④ (나):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어지러운 의식을 제거해야 한다.
 ⑤ (가), (나): 중생의 구제보다 수행자의 해탈만을 중시해야 한다.

14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- 지인(至人)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 사해(四海) 밖에 노닌다. 그에게는 삶과 죽음마저 상관이 없는데, 하물며 이로움이니 해로움이니 하는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.
- 그대에게 지금 큰 나무가 있는데 쓸모가 없어 걱정된다면, 드넓은 들판에 그 나무를 심어 놓고, 그 곁을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지내도 좋지 않겠는가.

- <보기>—
- ㄱ. 오감(五感)을 바탕으로 윤리적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.
 - ㄴ. 모든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해야 한다.
 - ㄷ. 외물에 얹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.
 - ㄹ. 자연과 하나 된 물아일체(物我一體)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ㄷ, ㄹ
 ④ ㄱ, ㄴ, ㄹ ⑤ ㄴ, ㄷ, ㄹ

15. 근대 한국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갑: 난세(亂世)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학(正學)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쳐야 한다. 적이 오면 적을 막아내고, 적이 가면 윤리를 닦고 밝혀 사악한 것을 잠재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.

- 을: 난세에 우리의 도(道)를 실천할 수 있다면 서양의 기(器)를 시행하는 것은 순박한 뒤집기처럼 쉬운 일이다. 우리의 도를 가지고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지구상 오대주를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다.

- ① 갑: 사회 혼란의 극복을 위해 유교적 가치를 고수해야 한다.
 ② 갑: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.
 ③ 을: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서구식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.
 ④ 을: 민족 주체성 수호를 위해 유·불·도 삼교(三敎)를 통합해야 한다.
 ⑤ 갑, 을: 부국강병(富國強兵)을 위해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.

4 (윤리와 사상)

사회탐구 영역

고 2

16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‘✓’를 표시한 학생은?

- 힘으로써 인(仁)을 가장하고 큰 나라를 지향하는 것은 패도(霸道)이고,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것은 왕도(王道)이다.
- 군주가 어질면 어질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고, 군주가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된다. 인에 머물고 의를 따르면 대인(大人)의 일이 갖추어진 것이다.

입장	학생	갑	을	병	정	무
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군주보다 귀한 존재이다.		✓		✓		✓
백성에게 항산(恒産)을 보장해 주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다.		✓	✓		✓	
군주는 나라의 이익 증진을 위해 힘과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.				✓	✓	✓
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더라도 군주를 교체할 수 없다.		✓	✓			✓

-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

17. 한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사단(四端)은 이(理)가 발하고 기(氣)가 따르는 것이고, 칠정(七情)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이다. 기가 따르지 않는 이는 나올 수가 없고, 이가 타지 않는 기는 곧 이기적 욕망에 빠져서 금수(禽獸)가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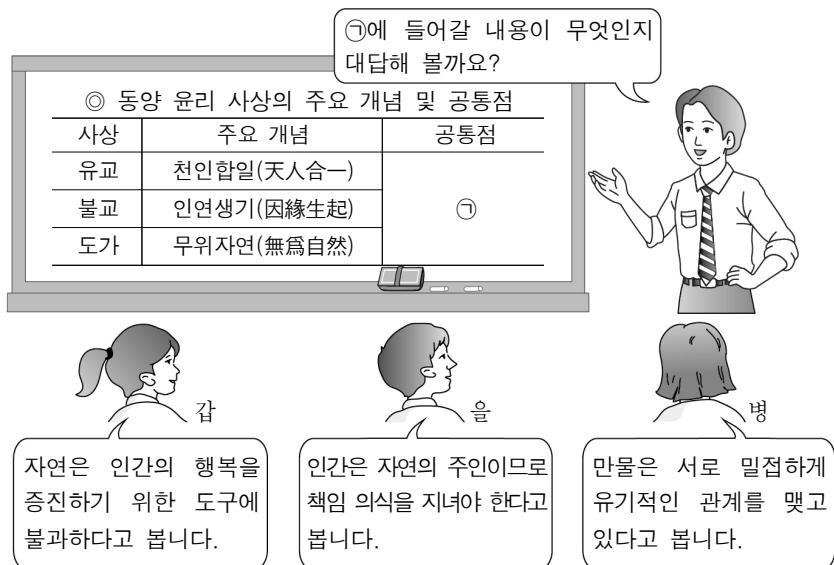
을: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이다. 어린 아이를 보고서 측은히 여기는 것은 기이니 이것이 기가 발한다는 것이고,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근본은 인(仁)이니 이것이 이른바 이가 탄다는 것이다.

<보기>

- ㄱ. 갑: 사단과 칠정이 발하는 근원은 분명하게 구분된다.
- ㄴ. 갑: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반드시 악으로 드러난다.
- ㄷ. 을: 사단은 칠정의 순수하고 선한 측면만을 가리킨다.
- ㄹ. 갑, 을: 사단에는 이만 있고, 칠정에는 이와 기가 함께 있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8. 그림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

- ① 갑 ② 을 ③ 병 ④ 갑, 을 ⑤ 을, 병

19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하늘은 인간에게 선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할 수도 있는 권형(權衡)을 부여하였다. 아래로는 선을 행하기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쉬운 형구(形軀)의 기호(嗜好)를 주었으며, 위로는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영지(靈知)의 기호를 주었다. 그러므로 선하면 곧 자기의 공(功)이 되고, 악하면 곧 자기의 죄가 된다. 이것은 마음의 권능이며, 본성은 아니다.

- ① 사단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선한 감정이다.
- ② 수양을 통해 인간이 지닌 모든 생리적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.
- ③ 인간에게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덕(四德)이 내재되어 있다.
- ④ 인간은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주자권(自主之權)을 지닌 존재이다.
- ⑤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닌 형구의 기호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이다.

20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, ⑦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옛날에 성왕(聖王)은 사람들의 본성이 악해 바르지 못하여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. 그래서 그들을 위해 임금의 권세로 군림하고, ⑦ 예의(禮義)를 밝히고 올바른 법도를 만들어 다스려 악한 행동을 금하였다.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이 모두 잘 다스려지도록 하고 선함으로 모이도록 한 것이다. 이것이 성왕의 다스림이다.

- ① 인간이 지닌 측은한 마음[惻隱之心]의 단서를 나타낸 것이다.
- ② 성인(聖人)이 제정한 도덕 생활과 통치의 표준을 뜻하는 것이다.
- ③ 인간의 타고난 도덕성이 외면적 사회 규범으로 표현된 것이다.
- ④ 사회 혼란의 원인이자 인위적인 도덕 규범에 해당하는 것이다.
- ⑤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도덕적 앎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.

* 확인 사항

-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 하시오.